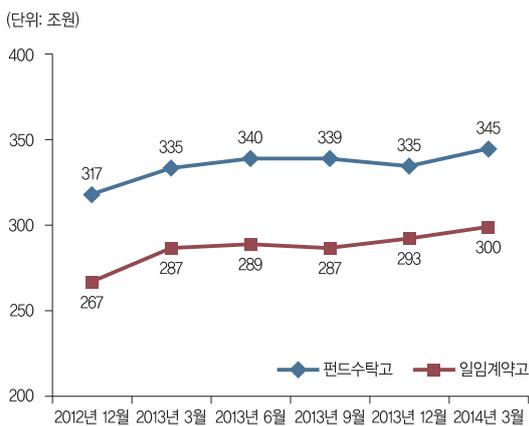


최근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및 시사점

- 2014년 3월말 자산운용사 운용자산(AUM)은 645조원으로 전년말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주식형펀드의 지속적인 침체 등 펀드시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반면 투자일임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따라 2014년 3월말 전체 자산운용사 AUM 중 펀드수탁고 비중은 53.4%로 전년말대비 0.6%p 감소한 반면, 투자일임은 46.6%를 차지함. 한편, FY2014년 1분기 분기순이익이 전분기대비 29.4% 감소한 것은 전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업이익 및 영업외손익이 평소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므로 자산운용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마찬가지로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FY2014년 1분기 순이익 상위 10개사의 이익점유율은 80%에 달하는 한편, 전체 운용사 대비 적자 운용사 비율은 37.3%로 나타나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또한 FY2014년 1분기 적자 운용사 31개사 가운데 14개 운용사가 2개분기 이상 연속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남
 - FY2014년 1분기 31개 적자 운용사의 펀드수탁고는 전체 수탁고 대비 8.2%에 해당하며, 이 중 17개 운용사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펀드 전문 운용사로서 평균 자산, 부채 및 자본금 규모는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 대비 각각 13.1%, 7.6%,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자산운용사 퇴출기준이 구체화되는 등 시장 구조조정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바,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
- 투자일임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2014년 3월말 자산운용사 운용자산(AUM)은 645조원으로 전년말대비 2.7% 증가하였으며, FY2014 1분기 자산운용사 순이익이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전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업이익 및 영업외손익이 평소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
- 2014년 3월말 전체 자산운용사 AUM은 645조원으로 전년말 628조원 대비 17조원(2.7%) 증가하였으며, 2012년말 584조원보다는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산운용시장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펀드수탁고의 경우 연말 기관투자자의 자금수요로 감소했던 MMF가 8조원 증가하는 데 힘입어 2014년 3월말 PEF를 제외한 설정액이 전년말 335조원 대비 3.0% 증가한 345조원을 기록함
 - 다만, 펀드수탁고 최고치인 2009년 2월말 389조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주식형펀드의 지속적인 침체 등 펀드시장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보임
 - 3월말 투자일임 계약고는 전년말 293조원 대비 2.4% 증가한 300조원으로 이는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일임 증가에 주로 기인함
 - 펀드와 달리 투자일임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 이에 따라 2014년 3월말 전체 자산운용사 AUM 중 펀드수탁고 비중은 53.4%로 전년말대비 0.6%p 감소한 반면, 투자일임 비중은 전년말대비 0.6%p 확대된 46.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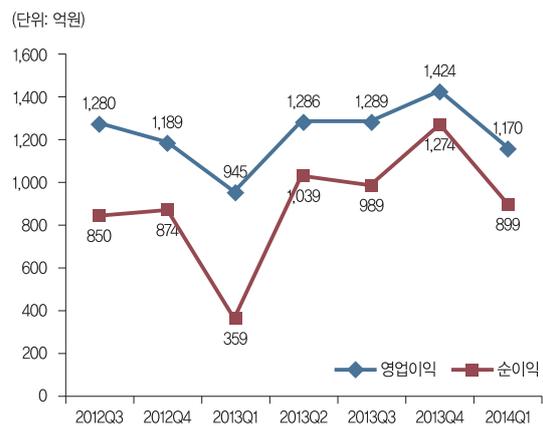
- 한편, FY2014년 1분기(2014년 1~3월) 전체 자산운용사¹⁾의 영업수익은 3,833억원으로 전분기 4,283억원 대비 450억원(10.5%) 감소하였으나, 이는 12월 결산 펀드에서 발생한 성과보수 등으로 전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수수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함
 - 특히, 영업규모 상위 10개사 영업수익은 FY2013년 4분기 2,168억원에서 2014년 1분기 1,932억원으로 236억원 감소함
 - 펀드 관련 수수료수익이 감소한 반면, 투자일임 규모 증가와 함께 1분기 일임 및 자문수수료는 84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52억원(6.5%) 증가함
- 영업비용은 2,66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96억원 감소하며 영업수익 감소폭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1분기 영업이익은 1,17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54억원(17.8%) 감소함
 - 영업규모 상위 10개사의 영업이익은 805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1억원(7.0%) 감소하고, 중소형사는 193억원(34.6%) 감소
- 전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업외손익 또한 평소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자산운용사의 FY2014년 1분기 순이익은 899억원으로 전분기 1,274억원 대비 375억원(29.4%) 감소함
 - 영업외손익은 FY2013년 4분기(2013년 10~12월) 220억원에서 FY2014년 1분기 -4억원으로 224억원 감소함
- 즉, FY2014년 1분기 분기순이익이 전분기대비 29.4% 감소한 것은 전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업이익 및 영업외손익이 평소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1분기 자산운용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마찬가지로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전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AUM)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전체 자산운용사 분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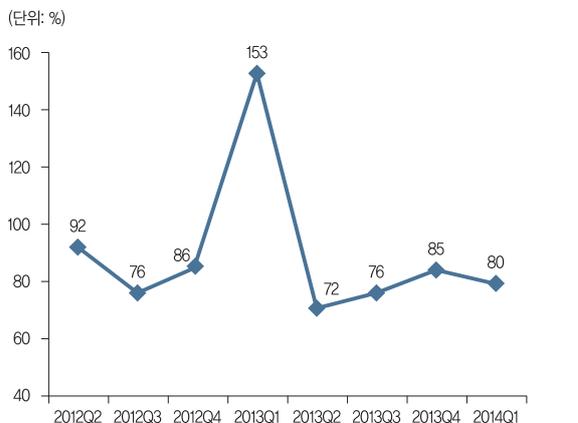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 FY2014년 1분기 순이익 상위 10개사의 이익점유율은 80%에 달하고 전체 운용사 대비 적자 운용사 비율은 37.3%로 나타나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적자 운용사의 절반 가까이가 연속 분기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익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보임

1) 2014년 3월말 전체 자산운용사는 86개사로 전년말보다 2개사(안다자산운용, 시몬즈자산운용) 증가하였으며, 53개사는 결산기가 12월이고 나머지 33개사는 3월 결산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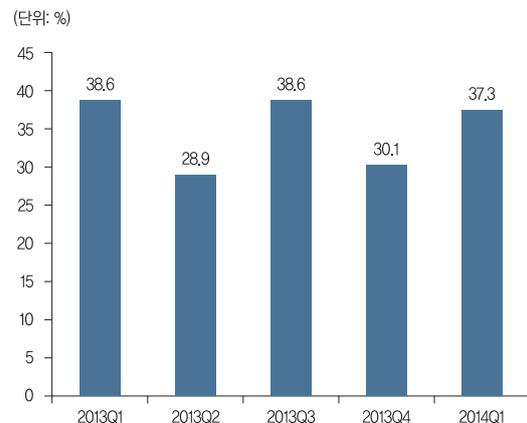
- FY2014년 1분기 순이익 상위 10개사의 분기순이익 합계는 719억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사 86개사 분기순이익 899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이익점유율은 80%에 달했으며, 이는 전분기 85%에 비해서는 5%p 완화된 것이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 한편, 영업규모 기준 상위 10개사의 분기순이익 합계는 637억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사 순이익의 70.8%로 나타나 소수 대형사에 대한 이익 집중도 또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2013년~2014년 3월말 기간 중 폐지되거나 신설된 운용사를 제외²⁾한 83개사를 대상으로 분기순손실 운용사 수를 집계한 결과, FY2014년 1분기 적자 운용사는 31개사로 전체의 37.3%를 차지함
 - 이는 전분기 적자 운용사 25개사 및 비중 30.1% 대비 각각 6개사, 7.2%p 증가한 수치임
- 또한 FY2014년 1분기 적자 운용사 31개사 가운데, FY2013년 4분기부터 2개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운용사는 1개사, FY2013년 3분기부터 3개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운용사는 5개사, FY2013년 2분기부터 4개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운용사는 1개사, FY2013년 1분기부터 5개분기 모두 순손실을 기록한 운용사는 7개사로 총 14개 운용사가 2개분기 이상 연속 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남
 - FY2014년 1분기 적자 운용사 31개사 가운데 지난 4개분기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전환된 운용사는 단 1개사에 불과함

분기순이익 상위 10개사 이익점유율 추이



주 : 분기순이익 상위 10개사 순이익/전체 운용사 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중 분기적자 운용사 비율 추이



주 : 2013~2014.3월 중 신설 및 폐지된 운용사 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FY2014년 1분기 31개 적자 운용사의 펀드수탁고는 전체 수탁고 대비 8.2%에 해당하며, 이 중 17개 운용사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펀드 전문 운용사로서 평균 자산, 부채 및 자본금 규모는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 대비 각각 13.1%, 7.6%,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FY2014년 1분기 순이익 상위 10개사의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는 각각 169조원, 179조원으로 전체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9.1%, 59.5%에 해당하는 반면, 31개 적자 운용사의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는 각각 28조원, 18조원으로 전체 대비 각각 8.2%, 5.9%를 차지함

2) 폐지 1개사(2013년 1월 골드만삭스) 및 신설 3개사(2013년 4월 라살, 2014년 2월 안다, 2014년 3월 시몬느) 등 총 4개사

- 주요 재무현황에 따르면, 전체 83개 자산운용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92억원, 부채는 65억원, 자본금은 183억원인데 반해, 31개 적자 운용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171억원, 부채 26억원, 자본금 121억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 대비 각각 34.7%, 39.3%, 66.3% 수준임
- 특히, 1분기 31개 적자 운용사 중 17개 운용사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펀드³⁾만 취급하는 운용사이며 이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64억원, 부채 5억원, 자본금 75억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 대비 각각 13.1%, 7.6%,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3월말 기준 부동산펀드 수탁고는 전년말대비 4.4% 증가한 25.4조원으로 전체 펀드수탁고 중 7.3%를 차지하였고, 3월말 특별자산펀드 수탁고는 전년말대비 0.01% 감소한 27.2조원으로 전체 펀드 중 7.8%에 해당함
- 자산운용사 퇴출기준이 구체화되는 등 시장 구조조정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바,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

〈문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02-3771-0627, ssy@kcmi.re.kr)

3)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글로벌 헤지펀드 동향 및 시사점

- UCITS 헤지펀드를 포함한 글로벌 헤지펀드 자산규모는 2013년말 2조 6,320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2.6% 증가하는 등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음을 보여줌. 특히, EU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한 UCITS 헤지펀드는 UCITS 규제 범위 내에서 파생상품 및 제한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좀 더 나은 투명성 및 유동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등 공모펀드로서의 장점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헤지펀드 대비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글로벌 헤지펀드를 운용지역에 따라 분류해보면, 2013년말 기준 북미지역이 72.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럽 21%, 아시아 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글로벌 재간접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2008년 최고치였던 1.2조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말 7,860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다만, 북미지역 재간접헤지펀드의 경우는 최근 2년새 운용자산이 증가하여 2013년말 운용자산이 5,360억달러로 전년말대비 5.5% 증가함
- 글로벌 헤지펀드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헤지펀드의 역할에 대해 꾸준히 낮은 변동성과 함께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나타내는 펀드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글로벌 헤지펀드가 지난 몇 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UCITS 헤지펀드를 포함한 글로벌 헤지펀드 자산규모는 2013년말 2조 6,320억달러로 전년말 2조 3,380억달러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서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음을 나타냄
 -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인¹⁾ 헤지펀드의 2013년말 자산규모는 전년말 2조 2,080억달러 대비 13.6% 증가한 2조 5,08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서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음을 보여줌
 - Hedge Fund Research²⁾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에도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이어져 1분기말 자산규모는 2.7조달러에 달함
 - 유럽 역내에서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구조로 설립된 공모형 헤지펀드(이하, UCITS 헤지펀드)³⁾까지 더하면 2013년말 글로벌 헤지펀드 자산은 총 2조 6,320억달러로 전년말 2조 3,380억달러 대비 12.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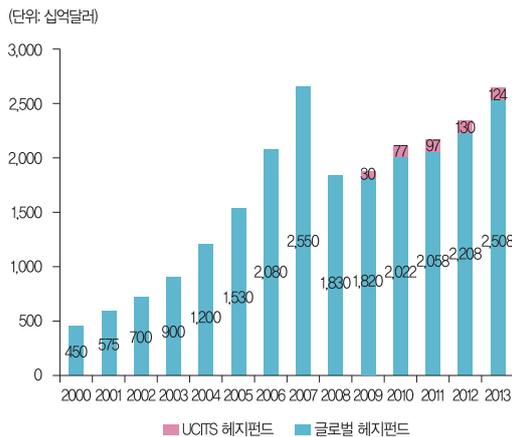
1) 대부분 역외에 설립되거나 혹은 미국 등에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구조로 설립되는 형태. 역외 헤지펀드는 투자자들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등록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구조로 되어 투자자 수에 제한이 없음. 이에 따라 합자회사 형태의 역외 헤지펀드는 종종 투자자 수에 대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역외에 보완적인 헤지펀드를 설립함. TheCityUK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글로벌 헤지펀드의 34%가 케이맨제도에서 설립되었고, 미국 24%, 룩셈부르크 10%, 아일랜드 7%, 영국령 버진제도 6%, 버뮤다 3% 등으로 집계됨

2) Hedge Fund Research, Press Release, Strong Inflows Drive Hedge Fund Capital To New Record In 1Q14, 2014.4.21

3) standalone onshore European UCITS 헤지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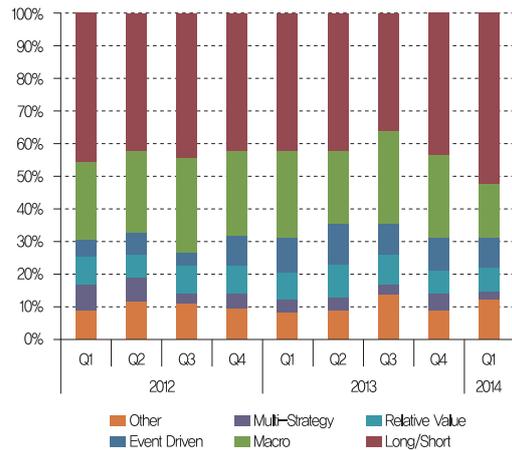
- EU는 1985년 유럽지역 공모펀드 관련 공통규범인 UCITS 지침을 마련하여 UCITS I 을 시작으로 2011년 7월부터 UCITS IV 시행중이며, UCITS를 제외한 모든 펀드(non-UCITS)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AIFMD(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가 시행되고 있음
 - EU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한 UCITS 헤지펀드는 UCITS 규제 범위 내에서 파생상품 및 제한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좀 더 나은 투명성 및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음
 - 공모펀드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헤지펀드 대비 수익률이 낮음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2009년말 303억달러 수준이었던 UCITS 헤지펀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말 1,240억달러에 이름
- 신규 글로벌 헤지펀드를 주요 전략에 따라 분류해보면, 2014년 1분기 중 설립된 헤지펀드의 53%는 Long/Short 전략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분기대비 10%p 증가한 반면, Macro 전략은 16%를 차지하여 전분기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Event Driven 9%, Relative Value 8%, Multi-Strategy 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규모 추이



자료: Hedge Fund Intelligence

신설 글로벌 헤지펀드 전략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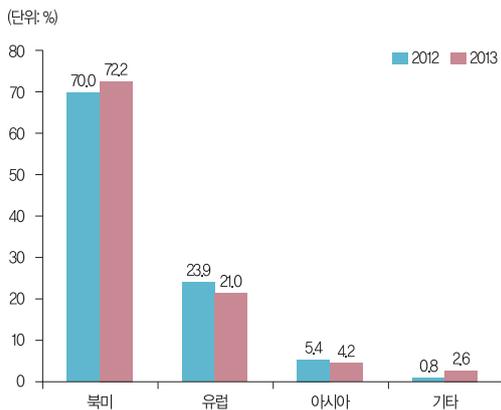
자료: Preqin

- 헤지펀드 매니저의 본사가 위치한 운용중심지 및 운용자산(AUM)을 기준으로 하는 2013년말 지역별 글로벌 헤지펀드 비중에 따르면, 북미지역이 72.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말 대비 2.2%p 증가하였고, 유럽은 전년말대비 2.9%p 감소하여 21%를 차지한 반면, 아시아 지역 비중은 1.2%p 감소한 4.2%로 비중이 더욱 작아짐
- 2012년말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운용자산 규모는 각각 1조 6,100억달러, 5,490억달러, 1,240억달러였으며, 2013년말에는 각각 1조 9,230억달러, 5,600억달러, 1,120억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Preqin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글로벌 헤지펀드 수익률은 1.23%, UCITS 헤지펀드 수익률은 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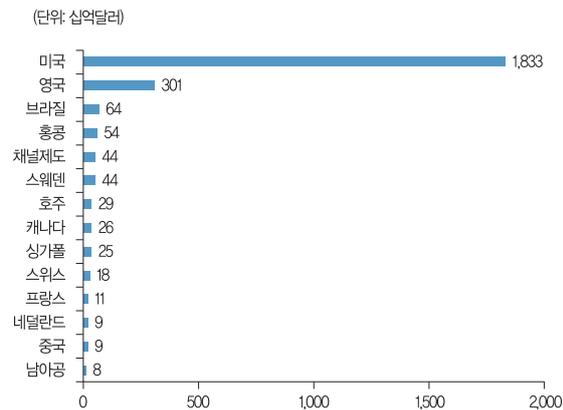
- Hedge Fund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3년 미국 내 신규 헤지펀드는 총 75개의 펀드가 208억달러⁵⁾의 자금을 모집하여 2012년 249억달러 대비 16.7% 감소한 가운데, 신규 헤지펀드의 약 58%가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⁶⁾
 - 유럽 지역의 경우는 2013년 중 83개의 신규 헤지펀드를 통해 94억달러를 모집하여 2012년 89억달러 대비 5% 증가하였고, 아시아 지역은 2013년 중 총 71개의 신규 헤지펀드를 통해 전반기 15억달러, 하반기 24억달러 등 총 39억달러를 모집하여 2012년 47억달러 대비 17% 감소함
- 이에 따라 2013년말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1조 8,33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영국이 3,010억달러로 미국과 영국의 운용자산이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 전체⁷⁾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⁸⁾
 -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호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아시아를 제외하고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가 십억달러 이상인 국가에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음

글로벌 헤지펀드 지역별 운용자산 비중



자료: Preqin

2013년말 국가별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



자료: Hedge Fund Intelligence

□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글로벌 재간접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2008년 최고치였던 1.2조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말 7,860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자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운용자산 기준 2004년 44%에 달했던 개인투자자 비중이 2012년말 20%까지 감소한 가운데 기관투자자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2012년말을 기준으로 투자자 중 기업(Corporations)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재간접헤지펀드(Fund of hedge funds) 비중은 25%로 전년대비 2%p 감소하였고, 연금(Pension funds)은 23%로 전년대비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 순자산 5천달러 이상의 헤지펀드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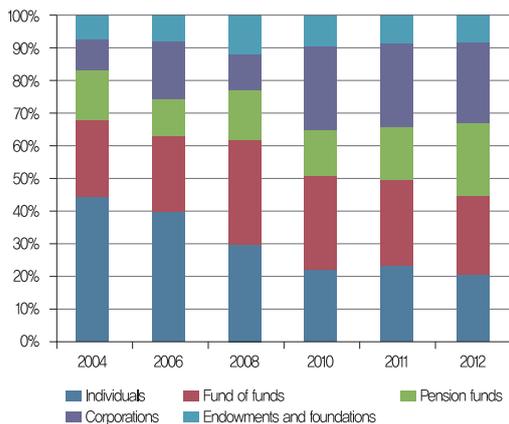
6) 자산규모 기준 US equity 31.2%, Global equity 26.7%, Credit 13%, Event driven 9.6%, Macro 6.7%, Multistrategy 5.4%, Mortgage backed securities 2.7%, Commodities 1.7%, Distressed 1.2%, Technology 1.1%, Asia equity 0.4%, Fixed income 0.3%의 순임

7) 운용자산 규모가 십억달러 이상인 국가만 포함

8) TheCityUK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글로벌 헤지펀드 자산의 약 42%가 뉴욕에서, 18%가 런던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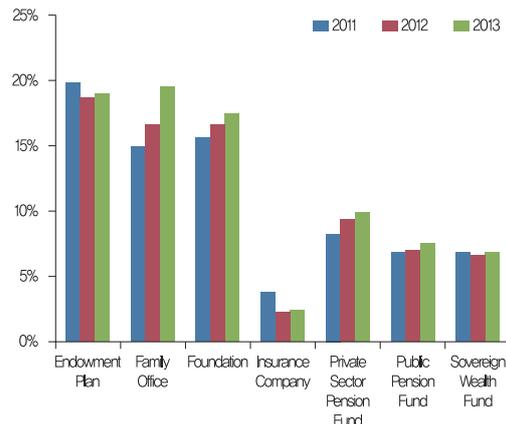
- 실제로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대한 자산배분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말 기준 기금(Endowment plan) 운용자산 중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18.9%를 기록하였고, 가장 증가폭이 큰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전년대비 2.9%p 늘어난 19.5%, 재단(Foundation)의 헤지펀드 투자비중은 전년대비 0.9%p 증가한 17.5%, 민간 및 공적연금은 전년대비 각각 0.6%p 늘어난 9.9% 및 7.5% 등으로 나타남
- 한편, Preqin에 따르면 글로벌 재간접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2008년 최고치였던 1.2조달러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며 2012년말 8,100억달러, 2013년말 7,860억달러까지 감소함
 - 신규 재간접헤지펀드 또한 2007년 182개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108개, 2013년 72개로 최고치의 절반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북미지역 재간접헤지펀드의 경우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최근 2년새 운용자산이 증가하여 2013년말 운용자산이 5,360억달러로 2008년 최고치인 6,26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2년말 5,080억달러 대비 5.5% 증가함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자 비중 추이



자료: TheCityUK

기관투자자의 헤지펀드 자산배분 추이



자료: Preqin

□ 글로벌 헤지펀드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꾸준히 낮은 변동성과 함께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나타내는 펀드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글로벌 헤지펀드가 지난 몇 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Preqin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글로벌 헤지펀드 수익률은 1.23%로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S&P 500 지수 수익률 1.3%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분기 중 전략에 따른 성과는 Event Driven 2.94%, Relative Value 1.54%, Long/Short 1.02%, Multi-Strategy 1.02%, Macro 0.51% 등으로 나타남
- 글로벌 헤지펀드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헤지펀드의 역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 또한 변화하여 이제는 꾸준히 낮은 변동성과 함께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나타내는 펀드를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3년말 기준 글로벌 헤지펀드의 5년 수익률(연율화)은 7.79%, S&P 500 지수 수익률(연율화)은 15.4%였으나, Sharpe Ratio를 통해 본 위험조정수익률은 헤지펀드가 1.28로 S&P 500 0.95를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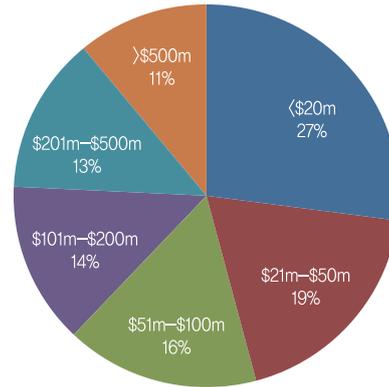
- Preqin이 헤지펀드에 600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⁹⁾에서도 응답자의 84%가 2013년 헤지펀드 투자성과에 만족하거나 기대이상이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함
- 한편, 최근 헤지펀드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2억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가 전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7%에서 2013년 24%로 증가함

글로벌 헤지펀드 5년 수익률 비교

	수익률 (연율화)	표준편차 (연율화)	Sharpe Ratio
HRFI Fund Weighted Composite	7.79%	5.88%	1.28
HFRI Equity Hedge	9.14%	8.45%	1.05
S&P 500	15.40%	15.85%	0.95
MSCI World	12.54%	18.07%	0.68
Barclays Global Aggregate ex-USD	3.51%	8.46%	0.38

주 : 2013년말 기준
자료: AIMA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집중도



주 : 2013년 1월 기준
자료: TheCityUK, EurekaHedge

〈문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02-3771-0627, sssy@kcmi.re.kr)

9) Preqin, 『2014 Preqin Global Hedge Fund Report』